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2. 13

서 정훈 연구위원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2/6~2/10)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1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3배에 근접할 정도로 상회하며 호조를 보인 측면에 따른 연준 긴축 우려감 재부각 등으로 급등 양상 출발 후, 다소 그 흐름 이어진 국면
- 중반 들어, 파월 의장 발언이 다소 매파적이었으나, 기존 입장 재확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 연준 위원들의 최종 금리 수준 상향 언급 등의 매파적 시사 등으로 달러 강세 지속하며 상승 추세 유지
- 후반 들어, 주중 고용 여파 충격, 국내 성장 전망 약화 소식 등 신인도 저하 우려 등으로 1,266원까지 상승하다 수출 달러 매도 강화 등으로 강보합 시현 후, 주 후반, 미CPI 대기 속 미-중 갈등 첨예화 이슈 반영 등으로 상승 지속 마감

## 달러/원 전망

- 미국 고용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가 다소 약화된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 높아졌다는 측면에 대한 부담감 증폭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할 요인으로 판단. 이에 14일 발표 예정인 CPI 추이가 환율 방향성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전망
- 여기에 중국 정찰풍선 이슈 이후 불거진 미-중 갈등의 첨예화 이슈도 일부 위험 회피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다만,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 선임과 관련해 통화정책 변경에 무게가 실리는 인사의 중용 가능성 등이 글로벌 달러 강세를 다소 제한할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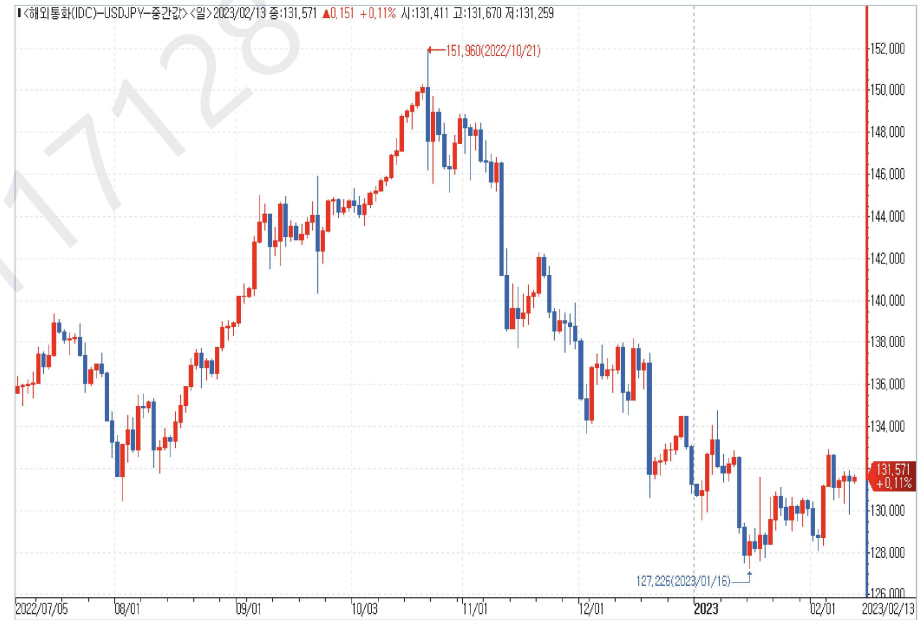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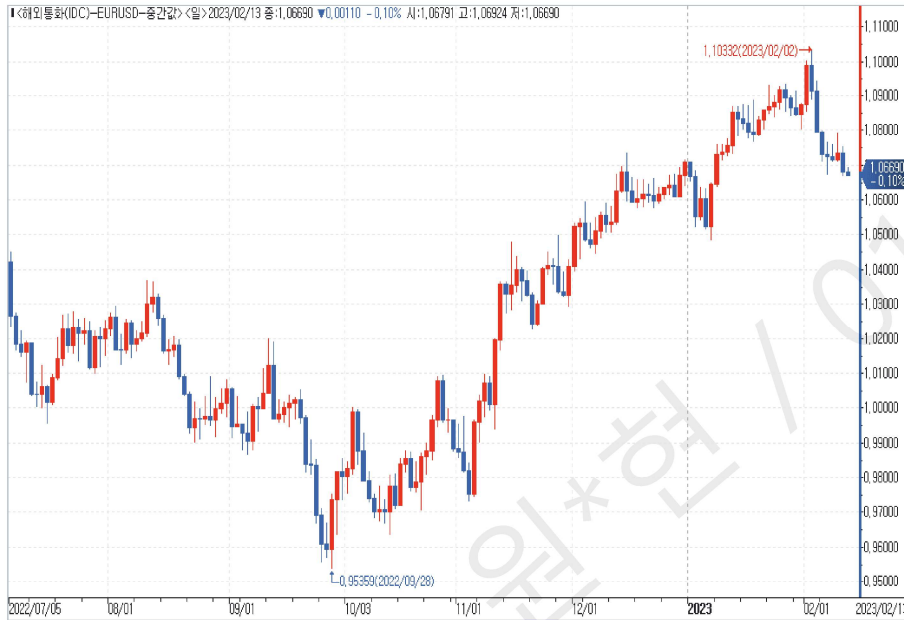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47.5	1266.5	1243.8	1265.2	+35.8

## 예상거래범위

1,255원 ~ 1,275원



# 엔·유로화 동향 [2/6~2/10]



## 유로화 동향

- 주초, 미국 고용의 시장 예상 상회 이슈에 강달러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미-중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도 달러 강세 지지함에 따라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 기대를 벗어나지 않았단 평가 속에 미 고용 충격 여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약보합 흐름
- 중반 들어, 유로존 내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ECB의 매파 성향에도 연준 위원들의 고용 지표 발표 후 강화된 매파 스탠스가 상대적 달러 강세 견인함에 따라 약세 흐름 지속
- 후반 들어, 독일 CPI가 8.7%로 시장 예상을 하회했으나 여전히 갭차이에 따른 ECB의 매파 행보가 연준에 비해 강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승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고용지표 여파 후 기대인플레이션 심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1월 CPI에 대한 높은 수준 우려 및 소비자심리지표 개선 등의 영향 반영하며 하락 전환하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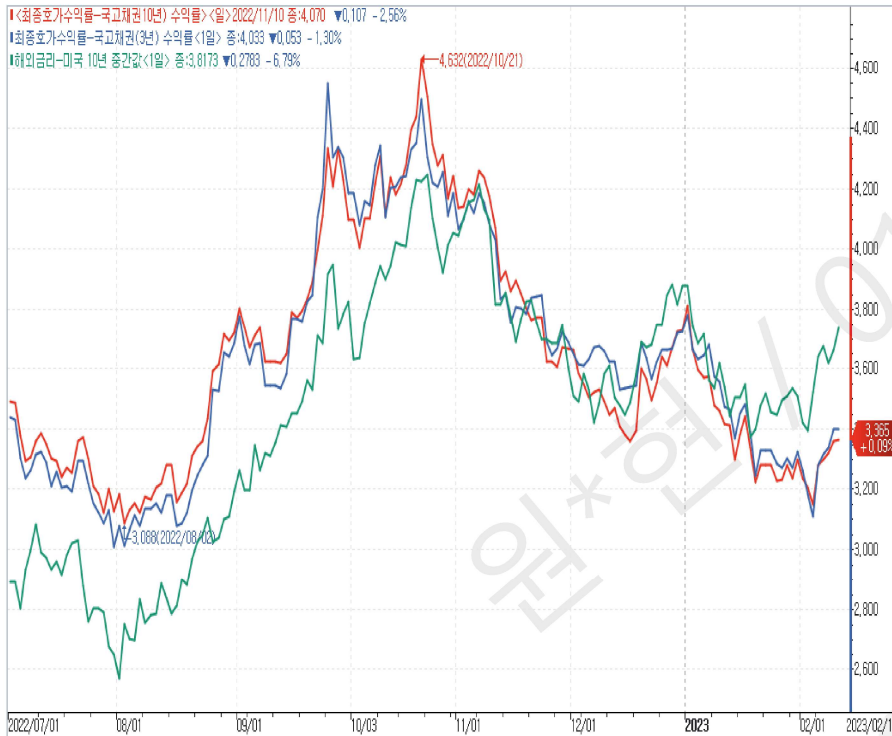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793	1.0799	1.0666	1.068	-0.0113

## 엔화 동향

- 주초, 미 고용 충격에 따른 달러 강세 속에 BOJ의 초완화 기조를 뒷받침하는 인사의 지명 가능성 대두 등으로 약세 흐름 출발. 이어 미 고용지표 여파가 시장에 상당부분 반영된 가운데 BOJ 통화정책 고수에 대한 영향도 시장에 크게 반영되었을 전망 등으로 강세 전환한 국면
- 중반 들어, 전일의 큰 폭 강세에 대한 되돌림 국면 속에 연준 매파 성향 반영 등으로 약세 전환
- 후반 들어, 4월 차기 BOJ 총재가 현 정책 변경할 수 있는 매파 인사 등용 소식에 달러 혼조세 반영하며 강세 전환 후, 실제 지명까지의 난관 인식 속 현 초완화 통화정책 고수 지속 기대 등으로 약세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기대인플레이션 심리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서도 엔화는 BOJ 차기 총재에 대한 매파 성향 인사 낙점 이슈가 크게 반영된 영향으로 재차 강세 전환하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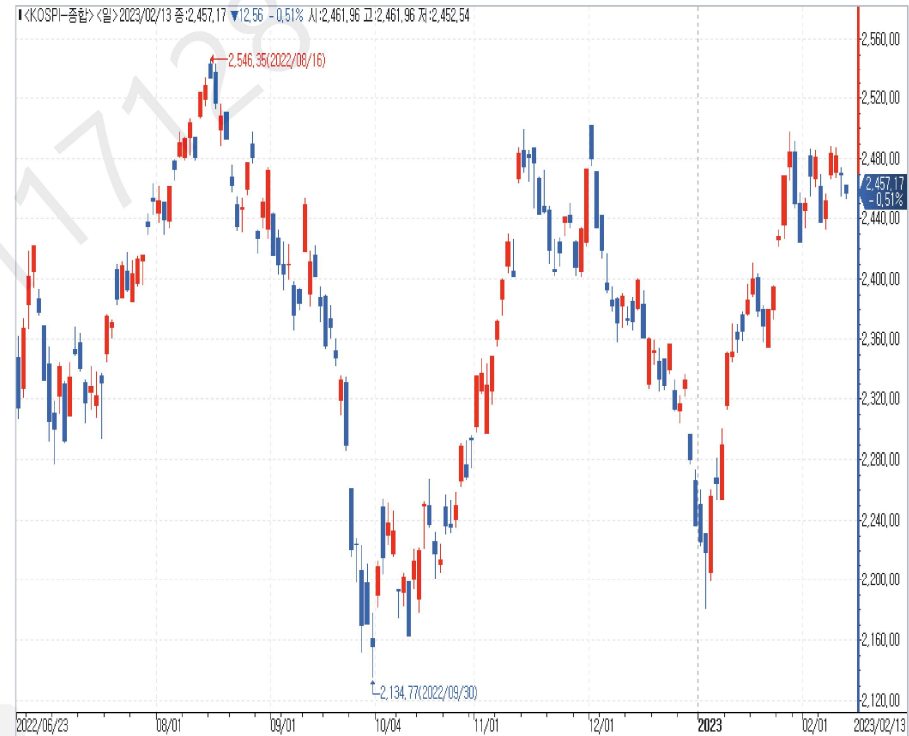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1.2	132.9	129.8	131.4	+0.26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2/6~2/10)\*



##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초,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약 3배 상회하면서 연준 피벗 기대 약화 등으로 미 국채금리 상승을 반영하며 17.3bp 상승 출발. 이어 미 고용 충격 여파가 다소 이어진 분위기 속에 상승세 이어졌으나, 금통위원의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언급 등으로 상승 추세가 제한된 양상
- 중반 들어, 파월의장 발언이 기존 입장 재확인 수준이란 인식에 시장 영향 제한적이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선물을 대량 매도한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 흐름 이어진 양상
- 후반 들어,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세 지속된 가운데 호주 금리 상승 등이 국내외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연준위원들의 매파 스탠스 지속도 영향을 미친 국면. 이어 주 후반, 미 주간실업보험 청구건수가 증가한 영향 속에 차주 미 CPI관망세 속에 보험권 혼조세로 마감



##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시장 예상을 3배 상회한 미 고용 지표에 따른 긴축 기대 약화 영향 속에 미-중간 갈등 재부각 등으로 투자심리 약화하며 하락 출발. 이어 전일 급락에 대한 되돌림 속에 개인 매수세 강화로 상승 전환
- 중반, 연준 의장의 올 큰 폭 물가 지표 하락 가능성 언급 등으로 뉴욕증시가 크게 상승한 영향을 반영한 가운데 외국인 매수 강화 등으로 상승세 지속
- 후반 들어, 미 고용지표 영향이 다소 약화하는 가운데 주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언급 등을 반영하는 가운데 KDI의 국내 성장 전망에 대해 예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 등으로 다소 투자심리가 약세를 보임. 이어 주 후반, 연준 의장과 연준 위원의 상반된 인플레이션 견해 속에 1월 물가에 대한 경계감 반영된 가운데 기관 매도 강화 등으로 하락 추세 이어지며 마감